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 피서객수 80%·해변 수익 70% 그쳐

고성군 2011년 여름 해변 운영 결산 ... 오토캠핑장 · 주차장 확대 필요 제기

올 여름 고성군 해변 개장 기간에 지역을 찾은 피서객수는 지난해의 80% 수준이었으나, 해변 수익은 알뜰 피서 등으로 대략 지난해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놀이 사고는 다수 있었으나 인명구조요원들의 활동으로 인명 피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가지 요금이나 자릿세 시비도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고성군과 해변 운영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서 절정기인 7월말~8월초 굿은 날씨로 피서객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광복절 연휴인 8월 13~15일 동안 다소 회복돼 전체적으로 80%선에 머물렀다.

실제로 고성군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개 해변을 찾은 피서객과 차량 현황을 집계한 결과 피서객수는 총 250만

4,784명으로 전년도 309만 4,767명의 80.9%에 그쳤다. 차량은 35만9,526대(소형 35만8,144대, 대형 1,382대)로 전년도 36만 9,344대의 97.3%였다.

고성군이 집계한 ‘2011년 피서객 및 차량현황’에 따르면 시범해변 가운데는 최근 수도권 피서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오토캠핑장이 전년도의 120.7%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갔으며, 송지호도 114.1%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봉수대(77.0%)와 화진포(71.5%)는 다소 줄었다.

일반 해변의 경우 삼포가 전년도의 57.9%에 그쳤으며, 백도는 20.0%로 크게 줄었다. 마을관리 해변 가운데는 아야진(228.3%), 천진(186.2%), 봉포(264.8%) 등 속초권과 가까운 해변들이 크게 늘었다. 금강산권도 투숙객들이 주로 이용한 마차

진 해변도 223%의 증가를 보였다.

화진포 거진해변 운영에 참여했던 거진번영회 관계자는 “민박이나 콘도 투숙객들이 피서객수로 잡히기 때문에 피서객수는 70~80선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해변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야영객수는 전년도 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수익은 크게 줄었다”고 했다.

또 피서객수가 크게 늘어난 마을관리 해변의 경우도 무료로 이용하는 가족이나 친지 등의 이용이 많아, 실제 수익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진해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환 천진2리 이장은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피서객수는 겨우 지난해 수준에 된 것 같지만, 관광객 수익은 70%선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람들이 많이 찾아도 현지에서 지출을 하지 않고 알뜰 피서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고성지역 26개 해변이 지난 21일 일제히 폐장한 가운데, 23일 화진포 해변에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변 운영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피서객 유치를 위해 비가 와도 캠핑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의 확대와 한꺼번에 밀려드는 차량을 보내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고성군 관계자는 “요즘 피서문화는 과거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 가족단위의 오토캠핑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것 같다”며 “피서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오토캠핑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올해 고성지역 해변별 피서객수 순위를 살펴보면 화진포가 전년도의 71.5% 수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53만9,341명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년도 3위였던 송지호가 42만9,470명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2위였던 삼포는 36만8,391명으로 3위에 그쳤다.

최광호 기자

### 高城紀行

8~9면

① 최북단 유인등대, 대진등대



제16회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죽왕면 삼포 해변에서 열렸다.

## “파란마음 굳센 단결, 내가 주인이다”

제16회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 삼포해변서

제16회 강원도 장애인 하계캠프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파란마음 굳센 단결, 내가 자랑할 주인이다’는 주제로 고성군 죽왕면 삼포 해변에서 열렸다.

도내 장애인 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자연의 넓은 품속에서 심신을 단련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도내 18개 지회 임원 및 회원, 가족, 자원봉사자 등 총 1천여명이 참가했다.

23일 오후 4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번 행사는 오후 8시 초청공연과 가요제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는 화합의 밤 행사가 펼쳐졌다.

또 24일 오후 8시에는 초청

공연과 가요제, 쏫불의식 등 어울림 한마당행사가 진행됐다.

이밖에 24일부터 25일까지 물풍선던지기, 사탕찾기, 공굴리기, 보물찾기 등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숨겨졌던 끼를 발산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회 어머니 포순이(단장 김영희)와 22사단 자원봉사단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행사를 지원했다.

박승근 기자